

간신증후군 환자의 간이식후 신기능과 생존율에 관한 임상적 고찰
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학교실¹, 외과학교실²

박인휘¹ · 문은준¹ · 황주안¹ · 유수경¹ · 김봉완² · 신규태¹ · 김흥수¹

Survival and Renal Function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and without Hepatorenal Syndrome : Clinical Observation

Inwhae Park¹, Eunjoon Moon¹, Joonan Hwang¹, Sukyong Yu¹
Bongwan Kim², Gyu-tae Shin¹, Heungsoo Kim¹

Department of Nephrology¹, Ajou university hospital, Department of Surgery²

목적 : Hepatorenal syndrome (이하 HRS)는 진행된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동맥순환과 내인성 혈관활성계의 현저한 이상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이다. HRS의 주 원인인 간질환이 간이식으로 호전된 후 신장의 기능과 환자의 생존율을 알아보려고 하였다.

방법 :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주대병원에 내원하여 간이식수술을 받은 129명의 환자중 첫 간이식이며 나이가 18세 이상인 125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HRS 환자는 1. 간경화와 복수가 있고, 2. 혈청 크레아티닌이 1.5 mg/dL 이상이며, 3. 적어도 2일 이상 이뇨제를 중단하거나 알부민을 투여하여도 혈청 크레아티닌이 감소하지 않고, 4. 저혈압성 Shock가 없으며, 5. 신독성 약물이 투여되고 있지 않으며, 6. 요검사상 단백뇨가 0.5 g/day 이상, 또는 요적혈구가 50개/HPF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자로 하였다.

결과 : HRS 환자는 10명이었으며, HRS가 아닌 환자(이하 no-HRS)는 115명이었다. 간이식 수술 1일전 두군간의 나이, 성별, Child-Pugh class, 혈청 알부민 수치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, 혈청 총 빌리루빈 (HRS : 13.3 ± 11.8 , no-HRS 7.9 ± 9.2 mg/dL, $p=0.044$),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(2.4 ± 0.5 , 2.0 ± 1.3 , $p=0.029$), 혈청 크레아티닌 (3.1 ± 2.7 , 0.9 ± 0.9 mg/dL, $p=0.000$), MELD score (The model of end-stage liver disease) (31.6 ± 7.5 , 15.8 ± 9.3 , $p=0.000$)으로 차이를 보였다. 혈청 크레아티닌은 간이식 수술 1개월 후 (3.1 ± 2.7 , 0.9 ± 0.9 mg/dL, $p=0.000$), 수술 3개월 후 (1.6 ± 0.5 , 1.0 ± 0.4 mg/dL, $p=0.000$), 이었으며, 수술 6개월 후 (1.4 ± 0.4 , 1.0 ± 0.3 mg/dL, $p=0.060$)이었다. 두군간의 환자 생존율은 수술 1, 3, 6개월 후까지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

결론 : 상대적으로 심한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HRS환자들은 간이식후 1, 3개월에 no-HRS 환자군보다 신기능이 감소되어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, 간이식 6개월후부터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, 두군의 6개월 생존율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HRS는 간이식후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

Key Words : 간신증후군, 급성신부전, 간이식

Hepatorenal syndrome, Liver transplantation, Renal failure